

지역 소식통

고창군, 수목보호

염화칼슘 방지책 설치

고창군이 겨울철 폭설시 중 앙분리대 화단의 수목보호를 위한 월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가로화단 수목의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해 고창C 진입로와 아산-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 15.2km에 염화칼슘 방지책을 설치하고 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가로수 주변의 땅에 스며들어 수목이 뿌리를 통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결과 수목들은 잎의 황화와 과사, 조기낙엽, 신진대사 장애 등을 일으키며 수세 약화 및 병충해 저항성 저하 등으로 고사에 이르게 된다.

군은 올해 신규 식재된 수목 뿐 아니라 관목류와 초화류를 중심으로 양 차도 방향으로 방지책을 설치해 내년 2월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겨울철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가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교육 추진

부안군은 지난 29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등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단 지역본부 현지조사팀에서 진행했는데, 고시 변경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및 사후절차, 권리구제 제도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부안=김석진기자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정읍시, 워크숍 개최... 당면 과제 공유·토론

민선 7기 정읍시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축산악취 없는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이남호) 국제협력관에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관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전 자선 기반 축산악취 저감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과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실무진은 연구개발 방향과 향후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악취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한환경학회와 악취 분야 전문 기업인 (주)태성환경연구소(주)아코관키로이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 공유와 기술이전 전략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개발된 기술이 축산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악취 해결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부의 R&D 투자 방향에 맞춰 지역 기반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악취 문제 해결과 같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투명페트병 따로 버려주세요"

고창군, 분리배출 적극 홍보

고창군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군은 다음달 25일부터 실시되는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대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 읍·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을 구축했고, 전광판, 홍보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무장면과 아산면을 시작으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45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고 따로 투명봉투에 담아 거점 배출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유색 페트병 등 유사 품목의 혼합배출로 재활용이 어려워 매년 해외로부터 연간 8만여

톤의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원의 절약은 물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고창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간편식 및 배달음식 급증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해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이 절실하다"며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중기부 주관 전북도 유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노후 소방시설과 노출 전선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전통시장 한계 극복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야시장과 외곽마을 가요제 등 문화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구)에서 추진한 제17기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29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졸업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

부안군,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졸업식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구)에서 추진한 제17기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29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졸업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1년 친환경벤처농업대학은 한우 컨설팅반, 팜푸드 비즈니스반, 푸드플랜 지역특화반, 부안농업 CEO반 등 4개 과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6월

부터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해 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초빙해 이론·실습·현장교육 등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농업

인대학은 부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사업 중 하나로 부안농업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해 농촌

진흥청에서 추진한 전국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군 농업인대학은 2021년 현재까지 1,600여명의 우수한 전문농업경영인을 배출했으며 이날 졸업식에서는 한우컨설팅반 김대중씨가 농업인대학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백산면 조상원 씨등 4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농업인이 되기 위해 주어진 학업을 이수해 오늘 졸업식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벤처농업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농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추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결·동파에 따른 누수에 대비해 단계별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계량기함 내부를 이불이나 헝겊 등으로 채우고 장시간의 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적은 양의 수도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환실장으로 동파 발생 시 담당 공무원 18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처리반과 비상급수반을 구성하고, 9개 대행업체 지정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물 부족 발생에 대비해 비상급수 차량 2대를 상시 대기시켜, 민약에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준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되면 수리될 때까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동파가 발생했다면 하루 24시간 언제든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상수도관에서 누수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560-8978, 8981~2)에 신고 한다

또한 고창군 당직실(560-2222)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